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강사 전춘애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박성연

Dept. of Consumer & Housing, Catholic Univ.

Lecturer : Jun, Chun Ae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 : Park, Seong Ye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Using questionnaire data from a sample of 144 mothers who have 6-36 months children in Seoul,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wife's marital satisfac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Whereas the level of the employed wife's parenting participation was very low, the level of another person's support wa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her husband participated less in the parenting than the unemployed wife's husband did.
2.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while the satisfaction of husband's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3. The satisfaction of husband's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wife's marital satisfaction. That is, wife's satisfaction of husband's support

predicted higher marital satisfaction.

4. For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wife,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marital satisfaction was not parenting stress but her husband's emotional support.

1. 서론

첫 자녀의 출생을 맞게 되면 부부는 대개 부모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충분한 준비과정없이 갑작스럽게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다른 어떤 역할전환보다도 심각하고 어려운 역할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기로의 전환 시기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Belsky 와 Kelly(1994)는 “그의”, “그녀의” 전환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부모로서의 역할 전환은 부인과 남편에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첫 자녀의 출생 자체가 부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스트레스는 남편보다는 직접적으로 아기를 더 많이 돌보게 되는 부인들에게 더 심각하게 발생된다(Glenn & McLanahan, 1982).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부의 역할 분담의 변화, 경제적 자원의 부담, 아기에 대한 끊임없는 보살핌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피로감, 배우자간의 의견 불일치 및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결혼의 질과 심리적 안녕을 감소시키게 된다(Ross, Mirowsky & Goldsteen, 1990). 그러므로 자녀의 주된 양육 책임자인 부인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심각할 경우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모기로의 전환 시기 이전에 부부간의 결혼관계가 좋았거나(고선주·옥선화, 1993), 부모기로의 전환 시기 이후에도 부부가 보다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우(Emery & Tuer, 1993)에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결혼만족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 취업모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어 취업모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는 아동·가족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직장일, 가사 그리고 자녀양육의 삼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그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취업모들에게 있어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많이 제공될수록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고(박성옥·김정훈, 1995; 이회정·이숙현, 1995; Belsky & Kelly, 1994)),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얻게 되며, 성격 및 자아확대의 근원이 많아져 만족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긍정적 경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이회정·이숙현, 1995)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 유무에 상관없이 첫 자녀를 출산한 부인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나, 자녀 양육과정에서 남편, 가족, 친구, 이웃, 기타 개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유형의 도움과 원조인 사회적 지지에 따라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경감될 수도 있으며 이는 나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자녀양육에의 사회적 지지가 부인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만성질환이나 장애아 그리고 학대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권유리, 1996; 문정희, 1995) 또는 부모기로의 전환 시기(고선주, 1996)나 취업모의 경우(이회정·이숙현, 1995)에 사회적 지지가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편모나 저소득층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어 (Longfellow, Zerkowitz, Saunders, & Belle, 1979; Tietjen, 1985; Cochran, 1993),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를 동시에 살펴 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대부분의 어머니

들이 첫 자녀 출생(정상 아동)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감소될 수 있는지, 또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가 취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6개월이하의 첫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와 만족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인과모형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첫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

부모기로의 전환 시기에 결혼관계는 정서적이고 표현적인 기능에서부터 보다 도구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관계로 변화한다(Belsky, Spanier & Rovine, 1983). 즉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있어 자녀 출산 후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시간, 에너지와 관심이 부부사이의 친밀감과 애정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Belsky, Lang & Rovine, 1985).

한편 동료애(partnership)로서의 관계는 자녀 출산 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부부가 부모라는 새로운 과업에 대처하기 위해 부부의 가족 역할이 더 전문화되어진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Cowan, Cowan, Heming, Garrett, Coysh, Curtis-Boles & Boles, 1985). 비록 임신 전에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배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 출산 후 배우자의 행동은 더 性 典刑的이 되어가고, 따라서 부인은 아이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남편은 직업적인 역할에 더 몰두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가 보다 역할을 동등하게 분배하도록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모기 전환 시기에도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여 증가된 性 分化가 결혼만족도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mery & Tuer, 1993).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기 전환 과정에서 자녀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인의 경우에 결혼의 질이나 결혼적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선주·옥선화, 1993; 고선주, 1996). 그러나 이숙현(1990)은 서구 가족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부 중심의 서구 가족에서는 자녀의 출생이 부부 생활에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혈연에 의한 부모-자녀관계가 부부관계보다 더 중시되었던 우리의 상황에서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부가 일심동체임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부부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가족, 친구, 이웃, 기타 개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유형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스트레스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초기의 스트레스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생활 변화가 개인의 부적응을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예측과는 상반되게, 생활사건과 적응의 상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abkin & Struening, 1976). 이는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변인들의 중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 사건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그러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태도, 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점차 아동이나 가족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으며(Cm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 및 사회적 지지를 실제로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사회적 지지는 하나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고선주, 1996).

Schaefer(1982)는 보살핌과 존중감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지, 충고나 안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그리고 돈이나 상품 또는 과업 보조를 포함하는 도구적 지지로 분류하였으며, House(1981)는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한편 고선주(1996)는 실제적인 자녀양육에서의 도구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도구적 지원을 서비스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2)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및 지지 제공자의 차이가 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들 중에서 편모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정서적 지지는 모-자녀관계의 質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ongfellow et al., 1979; Cochran, 1993에서 재인용), 편모가 받는 도구적 지지가 딸이 학교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Tietjen, 1985). 또한 지지적이며 양육 경험이 많은 주위 사람들의 격려로 자신감을 가진 어머니는 긍정적인 생활능력을 가지게 된다(Cochran, 1993).

한편 사회적 지지 중 배우자(남편)의 지지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의 영향력이 다른데, 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는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 1991; 박성욱·김정훈, 1995; 이희정·이숙현, 1995; 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Ross & Mirowsky, 1988). 특히 Belsky와 Kelly(1994)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 중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첫 자녀 출생 후 새로이 부모가 된

젊은 부부들은 자신들의 부모와의 접촉을 더 많이 하며 또 어린 자녀를 가진 다른 부부와의 접촉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Belsky & Rovine, 1984),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이 부부의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숙현(1990)은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친정 부모나 시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산층 취업모들이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비취업모에 비해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고선주(1996) 역시 취업모인 경우 가족에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적게 느껴 결혼 적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이희정과 이숙현(1995)에 의하면 취업모가 받는 사회적 지원의 양 자체는 심리적 안녕과 관계가 없지만, 지원의 질적인 측면인 만족도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모의 긍정적 정서와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Belsky와 Kelly(1994)는 자녀 출생으로 인해 제공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기대 수준의 위반은 남편보다 부인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기대 위반은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공유된 자녀양육에의 기대 위반보다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므로서 기대에 대한 만족 여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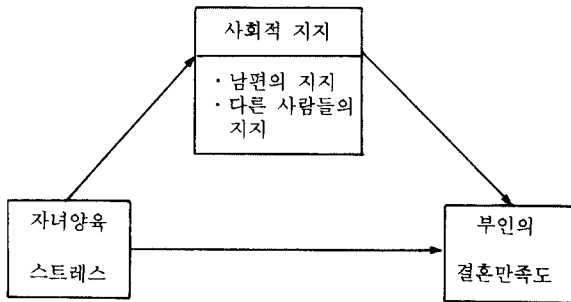
한편 Goldstein과 Ross(1989)에 의하면 이웃과 친구들의 방문과 정보 교환 등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감을 감소시켰으나, 이웃과 친구들의 대리 자녀양육은 부담감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의 종류에 따라 지지에 대한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첫 자녀의 출생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남편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로 인해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생활만족도나 자녀양육에의 어려움은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지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고, 사

회적 지지의 質的인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부모기로의 전환 후의 결혼 적응이나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으며, 사회적 지지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양과 만족도를 비교하고, 사회적 지지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라 연구 변인(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데 있어 부인의 취업유무가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첫 자녀의 연령이

만 6-36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 144명이며, 첫 아이를 대상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만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아기가 출생한 후 6개월이 되어야 어머니와의 애착이 형성되며,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 36개월로 제한한 이유는 자녀양육에서 어머니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보는 영·유아기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한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평균 연령은 28.9세 이었으며, 남편의 평균 연령은 31.9세였다. 이들의 결혼지속년수는 평균 3.7년 이었으며, 자녀수는 1명이 84%, 2명이 16%였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부인 69.4%, 남편 84%이었으며, 부인의 경우 전업 주부는 64.3%(92명)이었다. 직업을 가진 부인은 35.7%(52명)이었으며, 그 중 사무직/기술직에 56%가 분포되어 있었다. 남편의 경우에는 사무직에 60.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직업에는 고른 분포(10% 미만)를 나타내었다. 이들 가정의 평균 수입은 241.54만원으로 1990년 교육별, 1993년 직업별 인구분포자료(통계청, 1994)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은 중·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1일 직장 근무 시간은 평균 12시간이었다. 부인이 취업한 경우의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 이었으며, 이들 여성의 65.4%가 경제적 이유와 자아실현 모두를 위해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인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번안·수정한 박용임(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용임은 총 4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예비조사 결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문항 8개를 제거하고 본 연구에서는 총 40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여러 중요한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또는 자신이나 여러가지 가족상황 변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아동 영역과 부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3$ 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 척도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만든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번안·수정한 전춘애(199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춘애(1994)는 실시의 간편함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MSS에서 30개를 제외하고 총 18개 문항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결혼생활의 일정한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선호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3$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의 형태를 남편의 지지와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지지로 구분하였다.

남편의 지지 척도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

로 구분하였다. 양적인 측면의 구성은 첫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람들의 합을 10으로 놓고 부인, 남편, 그 이외의 사람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부인이 표기하게 한 다음¹⁾, 그 중에서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한편 질적인 측면은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부인이 남편의 도움을 임신기에 기대하였던 것과 현재를 비교하는 점수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이희정과 이숙현(1995)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Collins, Lobel, Dunkel-Schetter 와 Scrimshaw(1993)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근거로 하여 물질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영역으로 구분²⁾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가사노동은 부인의 취업과는 무관하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영역과 자녀 양육은 質적으로 다르다는 선행 연구(이미숙, 1995)에 근거하여 도구적 지지에서는 다시 자녀 돌보기와 가사노동으로 구분하여 총 5가지 영역의 지지가 최종적인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에서 '기대보다 아주 많이 도움을 준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남편이외의 다른 사람들(시부모, 친정부모, 귀하와 남편의 형제·자매, 친척, 이웃, 상주 가정부, 시간제 파출부, 탁아원)의 지지 척도 역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들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정도의 합을 다른 사람들의 지지의 양(量)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세 사람 이내로 선정하고³⁾, 앞서 제시한 5가지 영역의 지지(물질적, 자녀돌보기, 가사노동, 정보적, 정서적 지지)

- 1) 첫 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들의 합을 10으로 놓았을 때, A가족인 경우에는 부인(엄마)이 8, 남편이 1, 시어머니가 1의 비율로 아이를 돌본다고 부인 자신이 표기하는 것이다.
- 2) 물질적 지지 :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우,
도구적 지지 : 가사일 및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 제공,
정보적 지지 :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에 유익한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 이해, 격려하며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경우.
- 3) 첫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부인 자신과 남편이외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지 않음'(0점)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에 대해 이들이 주는 도움에 부인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척도는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전업 주부 4명, 취업주부 4명)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척도들의 내용이 수정·제거되었다.

문제의 검증을 위해서는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값을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분석

1. 자녀양육 참여정도의 일반적 경향

첫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람들의 양육 참여 정도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자녀양육 참여 정도는 0-10점의 분포를 이룬다.

〈표 1〉 자녀양육 참여정도의 일반적 경향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사람	비취업모 (N=92)		취업모 (N=52)		전체 (N=14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부인 (엄마)	7.09	1.59	2.65	1.71	5.49	2.69
2. 남편	1.50	1.16	1.08	0.68	1.35	1.03
3. 시어머니	0.38	1.01	1.90	2.95	0.93	2.07
4. 시아버지	0.04	0.21	0.13	0.40	0.08	0.29
5. 친정 어머니	0.51	0.87	1.71	2.64	0.94	1.82
6. 친정 아버지	0.03	0.18	0.21	0.70	0.10	0.45
7. 남편의 형제·자매	0.02	0.15	0.06	0.24	0.03	0.18
8. 부인의 형제·자매	0.21	0.55	0.13	0.34	0.18	0.48
9. 이웃	0.02	0.15	0.37	1.34	0.15	0.83
10. 상주 가정부	0.05	0.52	0.27	1.03	0.13	0.75
11. 시간제 파출부	0.11	0.50	0.37	1.24	0.20	0.85
12. 탁아원	0.02	0.15	1.12	2.24	0.42	1.44

본 조사는 1996년 2월 22일~3월 15일에 실시하였으며, 의도적 표출 방법에 의해 연구대상자 20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비취업모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취업모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대상의 자격 조건을 말한 후,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첫 자녀의 개월수가 맞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시켜 총 144부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연구

〈표 1〉에서 제시되었듯이, 취업모의 경우에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본인의 형제·자매만이 전체 평균인 5.49, 1.35, 0.18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첫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취업모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모는 남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 중에서 시어머니(1.90)와 친정 어머니(1.71), 그리고 탁아원(1.12)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본인 자신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았으며(7.09), 남편(1.50)과 본인의 형제·자매(0.21)의 도움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 검증

(연구문제 1)인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른 연구 변인(자녀양육 스트레스, 남편의 지지, 다른 사람들의 지지,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또한 취업모가 더 높은 것(비취업모 : 0.94 / 취업모 : 1.62)으로 나타났다.

3.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2)인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 유무에 따라 Pearson의 상관 관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표 2〉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 검증

변 인	연구대상	비취업모(N=92) 평균(표준편차)	취업모(N=52) 평균(표준편차)	t값
1. 자녀양육 스트레스		2.68 (0.36)	2.63 (0.36)	0.84
2. 부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		7.09 (1.67)	2.65 (1.71)	15.06***
3.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		1.50 (1.16)	1.08 (0.68)	2.87**
4.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2.74 (0.82)	3.02 (0.89)	- 1.85
5. 다른 사람들의 지지의 양		1.40 (1.58)	6.27 (1.99)	-15.08***
6. 다른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0.94 (0.92)	1.62 (0.95)	- 4.17***
7. 결혼만족도		3.87 (0.55)	3.80 (0.54)	0.66

** p < .01 *** p < .001

〈표 2〉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는 취업 유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고(비취업모 : 7.09 / 취업모 : 2.65), 특히 흥미로운 것은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는 예상과는 달리 비취업모의 남편(1.50)이 취업모의 남편(1.08)보다 첫 아이를 더 많이 돌보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른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지지의 양은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비취업모 : 1.40 / 취업모 : 6.27), 지지에 대한

(1) 비취업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

〈표 3〉에서 제시되었듯이 부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와 자녀양육 스트레스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r=.25, p < .05$), 비취업모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가 많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r=-.41, p < .001$), 부인이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남편의 참여 정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나($r=-.24, p < .05$),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많으면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적게 지각하였다.

〈표 3〉 비취업모 (N=92) :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자녀양육 스트레스	---						
2. 부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	.25*	---					
3.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	-.12	-.41***	---				
4.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24*	-.16	.32**	---			
5. 다른 사람들의 지지의 양	-.18	-.74***	-.30**	-.06	---		
6. 다른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07	-.53***	-.25*	-.02	.73***	---	
7. 결혼만족도	-.25*	-.03	.03	.47***	.02	.09	---
평균	2.68	7.09	1.50	2.74	1.40	0.94	3.87
표준편차	0.36	1.67	1.16	0.82	1.58	0.92	0.55

*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어지는 지지의 양(부인 : $r = -.74, p < .001$; 남편 : $r = -.30, p < .01$), 부인과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어지는 지지에 대한 만족도(부인 : $r = -.53, p < .001$; 남편 : $r = -.25, p < .05$) 사이에 부적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지의 양이 적을수록 비취업모와 그의 남편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어지는 지지에 대한 만족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상과 같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고($r = -.25, p < .05$),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47, p < .001$).

(2) 취업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

〈표 4〉에서 제시되었듯이 취업모의 경우도 비취업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r = -.56, p < .001$) 취업모가 자녀양육 스트레

스를 많이 경험하면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비취업모의 경우($r = -.24, p < .05$)보다 훨씬 높았다.

부인과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어지는 지지의 양(부인 : $r = -.94, p < .001$; 남편 : $r = -.55, p < .001$) 사이에 부적적인 상관을 보여 취업모와 그의 남편이 자녀 양육에의 참여 정도가 적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부적적인 관계($r = -.42, p < .01$)가 나타난 반면,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r = .70,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가 비취업모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표 3〉과 〈표 4〉에서 나타났듯이 남편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어지는 지지는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Baron과 Ken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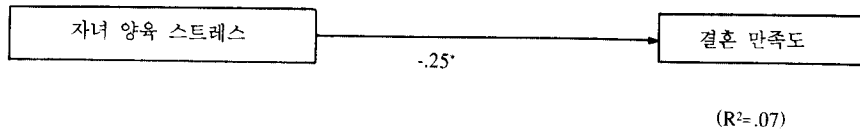
〈표 4〉 취업모 (N=52) :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자녀양육 스트레스	---						
2. 부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	.16	---					
3.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	-.28	.24	---				
4.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56***	-.20	.37**	---			
5. 다른 사람들의 지지의 양	-.04	-.94***	-.55***	.04	---		
6. 다른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19	-.18	.05	.17	.13	---	
7. 결혼만족도	-.42**	-.20	.20	.70***	1.10	.25	---
평균	2.63	2.65	1.08	3.02	6.27	1.62	3.80
표준편차	0.36	1.71	0.68	0.89	1.99	0.95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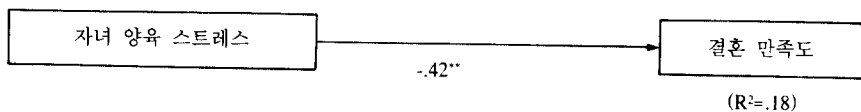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986)의 매개과정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지지에 대해서는 매개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남편의 지지에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비



〈그림 2〉 비취업모 :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



〈그림 3〉 취업모 :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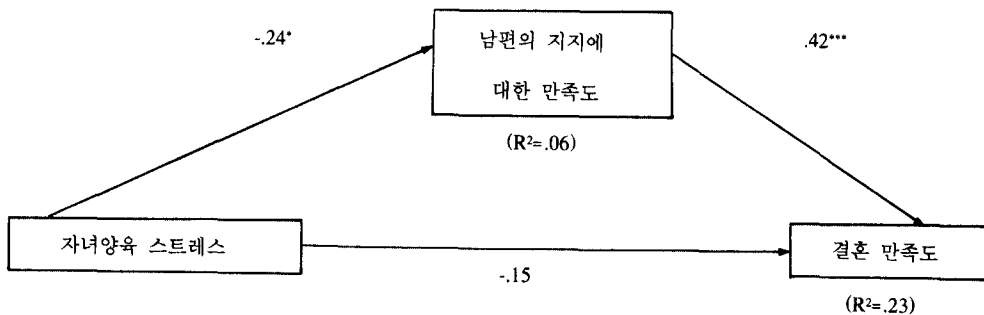
대한 만족도, 결혼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호상관관계가 나타나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취업모($\beta = -.25, p < .05$)와 취업모($\beta = -.42, p < .01$) 모두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어, 부인들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결혼만족도가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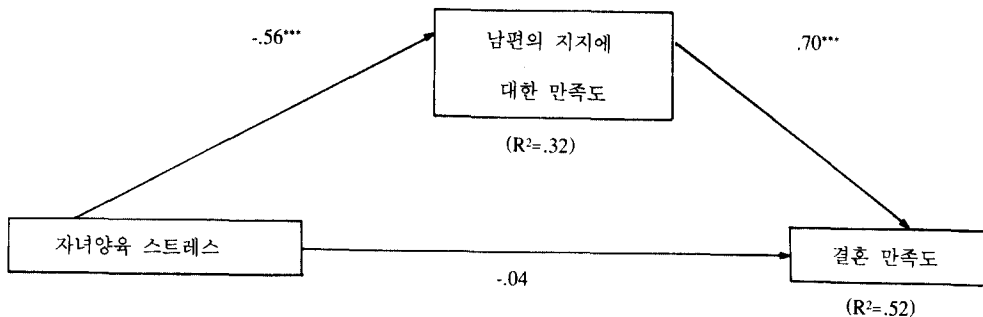
다음에는 종속변인인 결혼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인인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매개변인(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이 통제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다음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그림 4, 그림 5 참고).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켰다. 또한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통제되었을 때,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비취업모 : $\beta=.42, p < .001$; 취업모 : $\beta=.70, p < .001$).

한편 <그림 2>와 <그림 4>, <그림 3>과 <그림 5>를 비교해볼 때, 비취업모와 취업모 모두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통제되면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그림 4> 비취업모 :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의 영향력



<그림 5> 취업모 :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의 영향력

* $p < .05$ *** $p < .001$

<그림 4>와 <그림 5>에 의하면 비취업모($\beta=-.24, p < .05$)와 취업모($\beta=-.56, p < .001$) 모두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이 자

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사이에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 부모 전환기의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녀양육 스트레스 보다는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5가지 영역에서의 남편의 지지 중 어떠한 영역의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5가지 영역에 대한 남편의 지지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비취업모와 취업모 각각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결혼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 비취업모

독립변인	b	β	R ²	ΔR^2
정서적 지지	.20	.40***	.25	.25
(Constant)	2.94			

*** p < .001

〈표 5〉에 의하면 비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지지 중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beta = .40$, p < .001)만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단일 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5%이었다.

〈표 6〉 결혼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 취업모

독립변인	b	β	R ²	ΔR^2
정서적 지지	.15	.31*	.41	.41
경제적·물질적 도움	.16	.29*	.50	.09
(Constant)	2.47			

* p < .05

한편 취업모의 경우에는 남편의 지지 중 정서적 지지($\beta = .31$, p < .05)와 경제적 도움에 대한 만족도($\beta = .29$, p < .05)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50%였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36개월이하의 첫 자녀가 있는 어머니

144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와 만족도를 살펴보고,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취업모의 경우에는 비취업모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가 상당히 낮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취업모는 자신의 직장 생활(1일 평균 근무시간 : 10시간)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 수 없는 대신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 시모나 친정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60.7%가 그들의 자녀를 친정이나 시부모가 돌보고 있다는 박성옥·김정훈(199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취업모의 남편이 비취업모의 남편보다 자녀양육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취업모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 특히 시모와 친정모의 지지가 많아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고 방식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는 한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편 취업모의 경우보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적으므로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 남편이 자녀양육에 더 많은 참여를 하나 그 참여 정도는 낮았다. 또한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둘째,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고,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이 자녀를 계속해서 보살피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감소시켜 결혼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Ross, Mirowsky & Goldsteen, 1990)와 일치하며, 친밀한 지지(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이

연속 외, 1991; 박성옥 외, 1995; 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매개변인으로서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력이 통제되면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없어져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넷째, 남편 지지의 하위 영역 중에서도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한($R^2=.25$) 반면, 취업모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도움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50$). 취업 유무에 상관없이 남편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부부를 대상으로 한 Belsky 와 Kelly(1994)의 연구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비취업모와는 달리 취업모의 경우에도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물질적 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정서적 지지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모의 긍정적 정서와 강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희정·이숙현(199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서 특히 남편의 정서적 지지 이외에도 물질적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대리 양육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필요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취업모들은 자신의 육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시모나 친정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시모나 친정모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고용인 또는 공식적 자녀양육 기관에 아이를 맡김으로

써 정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면 물질적 도움이 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녀양육이 가장 힘든 만 36개월까지의 첫 자녀가 있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며, 자녀양육 스트레스 보다는 남편의 지지, 그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연구이고 부모기 이전의 결혼만족도를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부모기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나 남편의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그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그들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고, 특히 취업모의 경우는 대리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고선주(1996).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고선주·옥선화(1993).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I. 대한가정학회지, 31(3), 127-141.
- 3) 권유리(1996). 반응성 애착 장애 아동 어머니와 정상 아동 어머니의 성격 특성, 결혼관계, 사회적 지지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문정희(1995). 정신신체아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

- 의 변화. 가족학논집, 제2집, 1-27.
- 7) 이연숙 · 이순형 · 유가호 · 조재순(1991). 기혼 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 직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8) 이희정 ·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9) 박성옥 · 김정훈(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4), 13-25.
 - 10)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Abidin, P.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13)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14) Belsky, J., & Kelly, J.(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How a first child changes a Marriage*. Delacorte Press.
 - 15) Belsky, J., Lang, M. E., & Rovine, M.(1985).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A second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55-865.
 - 16) Belsky, J., & Rovine, M.(1984). Social-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55-462.
 - 17) Belsky, J., Spanier, G. B., & Rovine, M.(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67-577.
 - 18) Cochran, M.(1993). Parenting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49-178.
 - 19) Collins, N. L., Dunkel-Schetter, C., Lobel, M., & Scrimshaw, S. C.(1993). Social support in pregnancy : Psychosocial correlates of birth outcomes and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243-1258.
 - 20) Cowan, C. P., Cowan, P. A., Heming, G., Garrett, E., Coysh, W. S., Curtis-Boles, H., & Boles, A. J.(1985). Transition to parenthood : His, hers, and theirs, *Journal of Family Issues*, 6, 451-481.
 - 21)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M. N., & Basham, R. B. (1983). Effect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22) Emery, R. E., & Tuer, M.(1993). Parenting and the marital relationship.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21-148.
 - 23) Glenn, N. D., & McLanahan, S.(1982).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 A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63-72.
 - 24) Goldsteen, K., & Ross, C. E.(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04-526.
 - 25) Rabkin, J. G., & Struening, E. L.(1976). Life events, stress, and illness. *Science*, 194, 1013-1020.
 - 26)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27) Ross, C. E., & Mirowsky, J.(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
- 28) Ross, C. E., Mirowsky, J. & Goldsteen, K.(1990).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59-1078.
- 29) Tietjen, A.(1985).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al networks of Swedish mothers and their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8, 195-216.